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동향

KISA, UN 아·태 정보통신교육원과 정보보호 교육 협력 체결

아·태 지역 국가간 협력 확대 계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UN 아·태정보통신교육원(이하 UN-APCICT : UN Asian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과 정보보호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합의서를 지난 달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합의서 체결에 따라, KISA는 UN-APCICT가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IT 교육과정 중 정보보호 분야의 교재개발 및 강사지원을 하게 되며, UN-APCICT는 KISA가 매년 개최하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초청 침해사고대응 교육에 공동 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 및 훈련 뿐 아니라, 국가 간 공동협력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사업 체결과 관련해 KISA 황중연 원장은 “이번 공동합의서 체결은 KISA와 UN 산하기관과의 정보보호 교육 분야 협력을 공식화한 것으로 정보보호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아·태지역 내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협약 체결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UN-APCICT 이현숙 원장 역시 “이번 공동합의서 체결로 한국의 다양한 정보보호 경험과 우수사례들을 아·태지역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안전한 글로벌 사이버 환경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UN-APCICT는 UN 산하 아·태 경제사회개발이사회(ESCAP) 62개 회원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인천 송도에 설립된 유엔 정보통신 전문 교육기관이다.



▲ 정보보호 교육분야 협력 체결

세종사이버대학교 ISMS 인증 획득

교육 분야 ISMS 인증 관심 크게 높아질 듯

KISA가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을 수여했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정보보호관리체계는 기업이나 기관 등 조직의 자산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와 과정의 체계적 수립 및 문서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목표인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및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조직의 특성 및 환경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수립·구현 및 관리·유지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번에 KISA ISMS 인증을 받은 분야는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부문으로, 교육기관으로는 지난해 5월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들의 학사정보를 비롯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격교육 시스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인증심사를 진행한 KISA IT기반보호단 원유재 단장은 “최근 들어 쇼핑몰 회원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하고, “전 학습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이버대학교는 물론, 일반 대학교에서도 학사정보의 안전한 관리방안으로 KISA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택하고 있어 인증수요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기관, 세계 선진기업 수준으로 도약 중

KISA,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마련

KISA가 다가올 '유비쿼터스 사회의 정보보호 방향과 비전 제시', 'KISA 사업계획 2010의 성공적 실현', 그리고 '직원 전문성 향상과 벽 없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 산하기관 최초로 핵심역량 기반 교육체계(CBC : Competency Based Curriculum)에 6시그마를 결합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만들어 적용한다고 밝혔다.

핵심역량 기반 교육체계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만큼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 시행하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KISA는 여기에 조직문화 개선활동으로 6시그마를 결합해 한층 고도화된 중장기 교육체계를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등장한 교육체계에서는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정보보호 프론티어로서, ▶고객과 공익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자신과 기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과 성장 노력을 하고, ▶IT산업 전반에 대한 업무적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새로운 KISA의 인재상이 제시됐으며, 세부 업무별 전문가 육성 이후 단계적으로 핵심사업 단위 예비 경영자를 양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실제로, 중장기 교육 로드맵에 따라 향후 직원 1인당 연 평균 교육시간이 100시간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와 함께 리더십 및 직무역량 향상 교육 강화를 위해 원내 교육 외에도, 외부 기관 파견교육 및 위탁 직무교육, 자비 학위 취득과 정 등 기타 경력개발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관에 적합한 전문성 강화와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원 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KISA 황중연 원장은 "이번 직원 전문성 강화계획은 중장기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KISA의 경영혁신 및 사업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또,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정보보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 개최

정보보호 체계구축 지원 사업 일환

KISA가 오는 4월 3일(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5층 대강당에서 기업정보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기업정보보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목말라했던 안전한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관리와 내부 조직 관리 등 다양한 기업 정보보호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업 정보보호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KISA 관계자는 전망했다.

특히, 2007년 정보보호대상 수상 기업과 KISA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KT, 현대정보기술, G마켓, CIC 코리아, 씨에이에스, 대한항공 등 국내 정보보호 우수 실천 기업 6개사의 정보보호 활동이 기술적, 관리적 분야 등 주요 이슈별로 구분 제시될 예정으로,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워크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28일까지 사전등록 접수가 이뤄지는 이번 워크숍의 참석대상은 기업과 각 기관 내 정보화 및 정보보호 시스템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비롯해 정보보호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중식, 자료집, 기념품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참가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되며 관련 문의는 이메일(sykim@kisa.or.kr), 또는 전화(02-405-5657)로 가능하다.